

찬양 :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1.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믿음의 고백과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공감적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